

승리하신 하나님의 영이 구원의 자격

예수 자신도 구원론을 몰라

인류역사 육천년이 흐르면서 육천년 전 사람이나, 또 오천년 전 사람이나, 사천년 전 사람이나, 삼천년 전 사람이나, 이천년 전 사람이나, 천년전 사람이나, 현대인이나 모든 인생들이 영생을 희구했고 죽지 않는 것을 바라고 원했지만 결국은 다 죽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수 천 년 동안 다 죽어갔지만, 인생들은 죽기를 싫어했던 고로 '죽지 않는 길이 어디에 있을까?' 하고 열심히 찾았던 거죠? 그러나 육천년이 흐르는 동안 영생의 길을 찾은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에 와서 구세주가 영생의 길을 찾으셔서 성경적이면서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영생할 수 있는 방법론을 논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경적으로는 지금까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줄 알았던 고로 이천년 전 서부터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고 또 영생을 얻는 줄 알고 믿어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역시 한 사람도 영생 얻은 사람이 없었던 거죠? 예수 자신이 구원론을 몰랐고, 영생 얻는 방법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는 십계명을 어긴 자로서 분명히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고 '하나님 이름 이외에 다른 이름을 부르지 말라.'고 했는데 예수는 자기를 믿기만 믿으면 죽지 않는다고 사람들을 속여 왔던 것입니다. 분명히 요한복음 8장 51절에서는 '내 말을 지키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못하리라'는 말을 했고, 요한복음 11장 25절에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했죠?

또한 요한복음 6장 49절 이하에서는 뭐라고 말을 했느냐 하면 '너의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도 죽었거

니와 내 살과 피를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그랬죠? 그러나 과자를 나눠주면서 예수의 살을 상징하는 것이니 먹으라고 하였고 포도주를 나눠주면서 예수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니 마시라고 했지만, 그 포도주를 마시고 그 과자를 먹은 사람들이 영생 얻었어요? 못 얻었죠? 그러니까 100% 속인 거죠? 또 예수는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을 몰랐고, 생명과일이 무엇인 줄도 몰랐고, 믿음이 뭘 줄도 몰랐던 것입니다.

분명히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성경에 쓰여 있는데, 선물이라는 것은 선물을 받는 사람에게 이익이 되어야 선물이 되는 것이지, 받는 사람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면 선물이라는 말을 붙일 수가 없는 거죠? 에베소서 2장 8절에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바울선생이 당시에 성령을 받아 말은 했지만, 그 말씀의 진의를 알았어요? 그 말씀의 진의를 바울 선생도 알지를 못했던 고로 죽는 것입니다.

무죄판결을 받은 예수

오늘날 부활이 뭘 줄 알아요? 부활이 뭘 줄 바울을 비롯해서 예수의 제자들도 다 몰랐던 것입니다. 예수는 십자가를 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재판을 받았던 빌라도가 '나의 매부가 되는 예수를 처형하지 말아달라'는 아리마대 요셉의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고 '예수에게서 죄를 찾아볼 수가 없다.'고 무죄판결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무죄판결한 예수를 십자가 사형 틀에 매달아서 죽일 수가 있었어요? 없죠?

예수에게 무죄판결을 하게 되니까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 이제그대로



구세주 조희성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라'고 아우성을 치게 되었던 거죠? 그러자 빌라도는 예수에게 죄가 없다고 무죄 판결해 놓고 죽일 수는 없는 고로 사형 선고 받은 강도들 중 세 놈을 풀어내 가지고 가운데 십자가에 달라는 놈에게 흉포를 입히고 처형 장소는 아리마대 요셉의 정원에서 처형을 하라고 명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의 집 정원에서 처형을 하게 되면 만발치에서 사람들이 보게 되는 고로 얼굴을 볼 수 없게끔 하려고 빌라도가 그와 같은 계락을 꾸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강도 세 사람을 처형할 때에 가운데 있는 강도 바리바에게 흉포를 입혀서 만발치에서 보면 예수가 십자가에 매달린 것으로 생각하게끔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제자들과 막달라 마리아 등 모든 사람들이 볼 때에 예수가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는 줄 알고 땅을 치며 통곡을 했던 것입니다. 성경에 강

도 바라바가 나오는데, 강도 바라바에게 흉포를 입힌 것은 예수가 늘 흉포를 입고 다니면서 선교활동을 한 고로 예수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흉포를 입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강도 바라바가 흉포를 입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을 때에 옆에 있는 강도가 '주여, 그 나라에 가게든 나를 기억하소서'하는 말을 했죠? 그건 하나의 응답이었던 것입니다. 같이 십자가에 달린 강도들이 바라바인줄 모르셨어요? 그러나 예수처럼 보이게 하려니까 옆에 있는 강도들한테 로마병정들이 연극을 하도록 시켰던 것입니다. 연극을 하려면 완벽하게 해야 되는 고로 '주여, 그 나라에 가게든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까 '오나, 내가 너를 기억하마.'하고 예수처럼 말했던 것입니다.

성경상의 구원론

만발치에서 잘 들리지 않지만, 후시

들은 사람이 있다면 틀림없는 예수라고 생각하게끔 했던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기독교에서는 강도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말이 되는 말이에요? 실컷 강도질해서 부자로 자유롭게 살다가 죽기 전에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 한마디에 천당을 간다면 누구든지 강도질하지 뭐 하러 힘들게 살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강도짓 해가지고 교도소 생활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예수를 믿고 심지어 교도소 생활이 끝나고 신학교를 나와가지고 목사가 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이 사람은 교도소 생활을 하면서 강도들이 수감 중에 예수를 믿게 된 후 밖에 나와서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가 되어 교도소에 강의하러 왔던 고로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수감자들이 그들을 보고 '아니, 저 강도가 목사가 됐네!'하고 말하는 것을 이 사람이 들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강도였다가 목사가 된 사람이 많은 것은 성경에 강도가 '주여, 그 나라에 가게든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까 '오나, 너를 내가 기억해주마.'하는 말씀이 성경에 쓰여 있는 고로 강도가 구원을 얻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다 속을 수 밖에 없는 연극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강도가 구원을 얻었다는 말을 기독교에서 하는 건 구원론을 모르는 고로 하는 말인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이 요한복음 3장 5절에 기록되어 있고, '성령으로 거듭나려면 나를 버리라.'는 성경말씀이 있는데, 나를 버리려면 나를 죽여야 버릴 수가 있는 거죠? 나를 죽이려면 강한 하나님의 영

이러야 돼요, 약한 하나님의 영이라야 돼요? 강한 하나님이 되어야죠? 그런 고로 강한 하나님의 영이 마귀를 죽여 버리고 마귀가 있었던 자리에 이기신 하나님이 좌정할 때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듭났다가 되고 또 부활함을 입었다가 되고 나라는 의식이 이기신 하나님이 됐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이기신 하나님의 영이 믿음이요, 생명과일인 것입니다. 생명과일은 영생을 이루는 것이 생명과일인 고로 영생을 이루려면 사방의 신이 되는 마귀의 영을 이겨야 영생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고로 이긴자의 영이 믿음이요, 성령으로 거듭난 영이요, 부활함을 입은 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부활이라는 말자체가 성경 말이요, 성경말씀은 영적 말씀인 고로 영적 부활을 말한 것이지, 육의 부활을 말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는 성경을 몰라도 한참 몰랐던 사람인 고로 구세주라기보다는 거짓말쟁이라고 해야 말이 맞는 것입니다. 성경의 진의도 모르는 자가 구세주로 둔갑을 해가지고 역사를 한 고로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죽게 했던 것입니다.

예수만 믿으면 죽지 않는다는 말을 믿고 예수가 말한 것을 그대로 지키려고 애를 쓰고 노력했지만, 결국은 죽어서 무덤 속으로 들어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속임수의 역사요, 마귀가 사람들을 모조리 죽이려는 계략 속에서 이루어진 역사라고 봐야 정확한 것입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생명과일을 먹어야 구원을 얻는다.' 또한 '성령으로 거듭나야 구원을 얻는다.' '부활함을 입어야 구원을 얻는다.' '하나님 안에서 행해야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이 써여 있는 것입니다.

하단에 계속

보통 하나님의 영보다 강했던 마귀가 보통 하나님을 점령하여 전부 사람으로 만들었다

(이어서)

이기신 하나님의 영이라야 구원의 자격이 됨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구원을 얻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된 다음에야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되려면 나라는 의식의 마귀 영을 이기고 죽여서 하나님의 영이 내가 되어야 하는데, 이 상태가 부활함을 입었다가 되고 성령으로 거듭났다가도 되고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다가도 되고 하나님 안에서 행한다가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말씀이 짝이 맞죠? '짝이 맞는 말씀이 여호와와 말씀'이라고 이사야서 34장 16절에 써여 있는 고로 짝이 안 맞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말은 하나이지만 구원이라는 말에 짝이 맞는 말은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과 생명과일을 먹어야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나라는 주제의식이 마귀의 영인 고로 이 마귀의 영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이 무력무력 강하게 자라서 마귀의 영을 죽여서 없애버리고 이기신 하나님의 영이 나라는 의식의 자리에 앉았을 때에 비로소 승리의 하나님

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승리의 하나님의 영이라야 믿음이 되고, 생명과일이 되고 하나님 안에서 행한다가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다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승리의 하나님의 영이 구원의 자격이라는 것을 기독교에서 알아요? 승리의 하나님의 영이 구원의 영이라는 것이 성경에 써여 있어요, 안 써여 있어요? (안 써여 있습니다) 안 써여 있는데 성경의 주인공이 와서 믿음과 생명과일과 성령으로 거듭난 영과 부활함을 입은 영과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영과 이제그대로 구원의 영이 바로 승리의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을 설명하니까 무릎을 치면서 맞다고 인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그대로 마귀가 보통 하나님의 영보다 강한 고로 마귀가 보통 하나님을 점령하여 전부 사람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마귀영이 주인이 되어가지고 있는 고로 마귀의 종인 바로 사람인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은 틀림없는데 마귀 종 하나님인 것입니다. 마귀 종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독교에서는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이라는 것은 않지만 마귀 종이라는 것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이 사람이 논하는 구원론을 가지고 텔

레비전에서 기독교 거물급 신학박사들과 토론을 한다면 이 사람과 상대가 될까요? 상대가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알죠? 그들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승리의 하나님이라야 구원을 얻는 것이지 마귀를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은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것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의 나이는 6000살

그런고로 오늘날 이 승리제단에서 이런 진리의 말씀을 듣고도 전도를 못하고 제단 나오는 것을 게을리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구원 얻을 자격이 있어요? 구원 얻을 자격이 없죠? 이 사람이 여러분들의 나이가 육천 살이라고 하죠? 여러분들의 피가 육천 살 먹은 피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몸속에 육천년 전 아담과 해와 하나님의 피가 대대손손 내려오면서 살았던 고로 피의 나이가 육천 살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더러 '여러분들은 다 6000살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고로 우리제단에 나오시는 분들 가운데 세상 나이가 많다고 해서 젊은이가 먼저 인사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버티고 서 있다면 그건 실례라고 그랬던 거죠? 먼저 본 사람이 인사하는 것입니다. 같은 동갑이나가 아니겠어

요? 세상에서는 남들이 안 가는 말이지만 사실은 피의 나이가 똑같은 육천 살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젊은이들이 나이 많은 노인들한테 맞먹으려고 하면 될까요? 그러면 안 되죠? 사람이 되면 될수록, 잘 나면 잘날수록 머리를 숙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젊은이들은 나이 많은 사람들한테 동감은 동감이지만 늙었으니까 존중해줘야죠? 버스 안에서 노인네가 올라오면 젊은이는 자리를 비켜줘야지, 그렇지 않은 사람은 예의·도덕이 없는 사람이라고 해서 세상에서는 손가락질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말씀은 흠과 티를 찾을 수 없는 온전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거의 다 마귀 종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완전한 말씀을 안 하면 트집을 잡고 공격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 역사를 하면서 공격을 받지 않은 것은 말씀 자체가 완전하여 흠과 티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사람이 성경구절을 말씀할 때에 가서 성경을 찾아보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2001년 7월 6일 주님 말씀 중에서 정리 원혁욱 기자

※ 예수의 입(입술)을 빌려서 역사하는 공중신 마귀와 하나님 신의 지열한 수싸움에 속하는 대표적인 예를 성경에서 찾아 열거해본다.

(1) 마태복음 22장 42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구세주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에서 나오는 줄 알고 있다. 이에 하나님은 예수의 입을 빌려 "주님 되신 하나님만이 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고 다윗이 분명히 말했는데, 어찌 다윗의 자손 가운데 그리스도가 나올 수 있겠는가?"라고 말함으로써 다윗의 자손이 되는 예수 또한 그리스도가 될 수 없음을 암시한 것인데, 이것을 우둔한 마귀는 알아차리지 못하고 여기에 해당하는 마가복음 12장 37절을 삭제하지 않았던 것이다.

(2) 마태복음 12장 2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 입을 빌려 "나 예수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까지 너희에게 임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둔한 마귀는 '예수가 성령의 힘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이 아니면 반대로 예수는 마귀의 신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은 고로 하늘나라가 지금까지 임하지 못했다는 의미요 또한 예수 자신이 성령으로 양태되지 않았다'는 자백의 말이다' 라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했던 것이다.

(3) 예수는 자기만이 하나님의 독생자이다(요3:16)고 말을 했는데, 이에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입을 빌려 시편 82편 6절의 구절을 인용하게끔 하여 예수 자기만이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라는 말이 잘못되었음을 암시하였다(요10:34). 그러나 우둔한 마귀는 동방의 해 뜰는 곳인 한반도에서 출현하신 구세주에 의해서 사람이면 모두 하나님의 자식이라는 성경구절을 발표하기 전에는 결코 알지 못하는 것이다.

(4) 분명히 성경 속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이미 저주 아래 있는 자니라'라고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쓰여 있는데도 십자가 나무에 예수가 달렸다고 높이 매달고 기도하고 있으니 그 사람들은 참으로 경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다. 십자가를 지지 않았는데도 십자가 지었다고 하고 있으니 오히려 예수에게 욕 풀리고 있는 것이다. 예수를 저주받은 사람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신령기 21장 23절에도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다.

(5) 요한복음 14장 30절에 "내 뒤에 이 세상 임금이 오신다"라고 쓰여 있는데 이 말은 예수가 한 말이고로 예수 스스로 이 세상 임금이 아니라고 자백을 한 것이 된다. 이 세상 임금이란 말은 구세주를 지칭한다. 구세주는 유대 나라 백성들에게만 구세주가 아니고 온 세상 인류의 구세주이다.'